

사람은 육식동물인가? 초식동물인가?



인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250만 년 전부터이다. 적어도 구석기 시대에는 채식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는 사람들이 고기 껍데기를 벗기거나 자르는데 사용했던 도구들이 발견된다. 화석에서도 구석기인들이 식물성 식품을 즐겨 먹었다는 증거들을 찾기 힘들다. 인류의 조상은 채식보다 육식을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초식동물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람의 위(胃) 산도(酸度)가 초식동물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육식동물의 위 산도가 인간이나 초식동물의 위 산도에 비해 20% 가량 더 높다는 것이다. 또 사람과 초식동물의 침은 알칼리성인데 반해 육식동물의 침은 산성(酸性)이라는 사실도 증시한다. 치아 내장의 구조도 인간이 본디 초식동물에 가깝다는 증거로 흔히 제시된다.

인간의 어금니가 초식동물처럼 평평하고 턱뼈의 구조가 식물을 잘 씹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腸)도 육식동물의 경우 섭취한 고기를 빨리 통과시키기에 적합한 파이프 모양인데 비해 인간과 초식동물의 장은 '울퉁불퉁한 자갈길' 같다는 것도 인간이 원래 초식동물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장에 굴곡이 많아야 필요한 영양소를 여유있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반면 인간이 처음에는 육식동물이었다가 점차 잡식동물로 진화했다고 보는 학자들은 원인(猿人)들의 치아가 육식동물의 이빨과 비슷했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운다. 그 후 인간이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잡식성 동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치아의 구조가 그에 맞게 진화했다는 것이다. 또 인간의 위(胃)·장(腸) 등 소화기관의 크기·길이도 초식동물에 비해 작고 짧은 것도 인간이 원래 육식동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흔히 제시된다. **유영환**

발췌 : 박태균(2012년 12월호), 「축산식품과학과 산업」, (사)한국축산식품학회 제1권 제2호